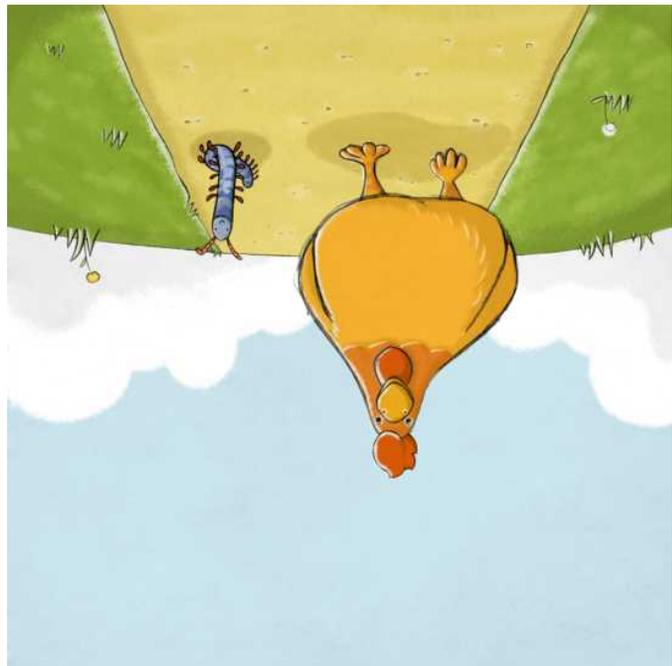




 Winny Asara  
 Magriet Brink  
 Michelle Kim  
 Korean  
 Level 3



닭과 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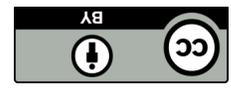
Storybooks Canada

[storybookscanada.ca](http://storybookscanada.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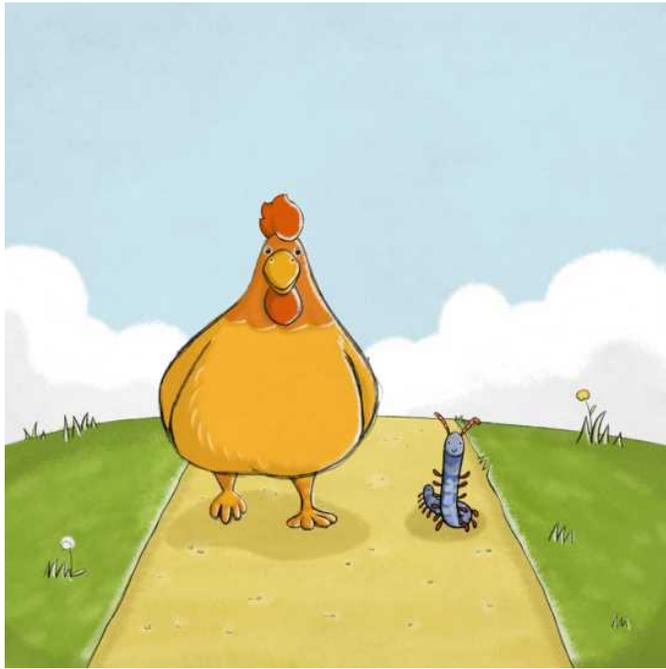


Written by: Winny Asara  
 Illustrated by: Magriet Brink  
 Translated by: Michelle Kim

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africanstorybook.org](http://africanstorybook.org))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s stories in Canada's many languages.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닭과 지네는 친구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 경쟁을 했죠. 어느 날 그들은 누가 더 축구를 잘하는 지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들은 축구장으로 가서 게임을 시작했어요.  
닭은 빨랐지만 지네는 더 빨랐어요. 닭은 멀리  
공을 찼지만 지네는 공을 더 멀리 찼어요. 닭은  
점점 짜증이 났어요.





그들은 승부차기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은 지네가 골키퍼였어요. 닭은 한 골만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닭의 수비할 차례가 되었어요.



그 후로, 닭과 지네는 적이 되었어요.

닭은 자기의 뱃속에 있는 지네가 나올때 까지  
기침을 했어요. 얼마 지네와 그 지네는 나무 속  
으로 숨으려고 기어 올라 갔어요.



지네가 공을 차고 쿵을 냈어요. 지네는 드리  
블을 하며 쿵을 냈어요. 지네는 헤딩을 하고  
쿵을 냈어요. 지네는 다섯 쿵을 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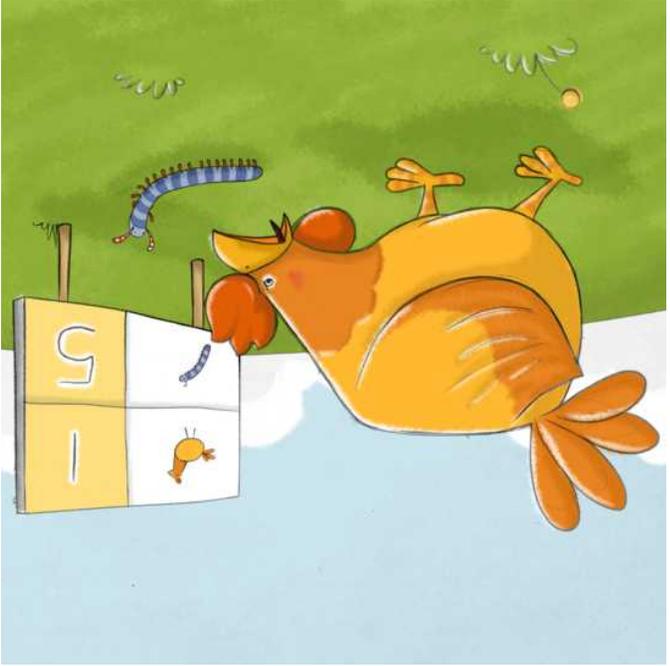


닭은 저서 화가 났어요. 닭은 정말 심한 폐배자였어요. 지네는 닭이 화나서 난동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웃기 시작했어요.



닭은 트림을 했어요. 그리고는 삼켰다가 뱉었어요. 또 그녀는 재채기와 기침을 했어요. 그 지네는 역겨웠죠!

닭은 너무 화가나서 부리를 크게 벌리고 지네  
를 삼켜 버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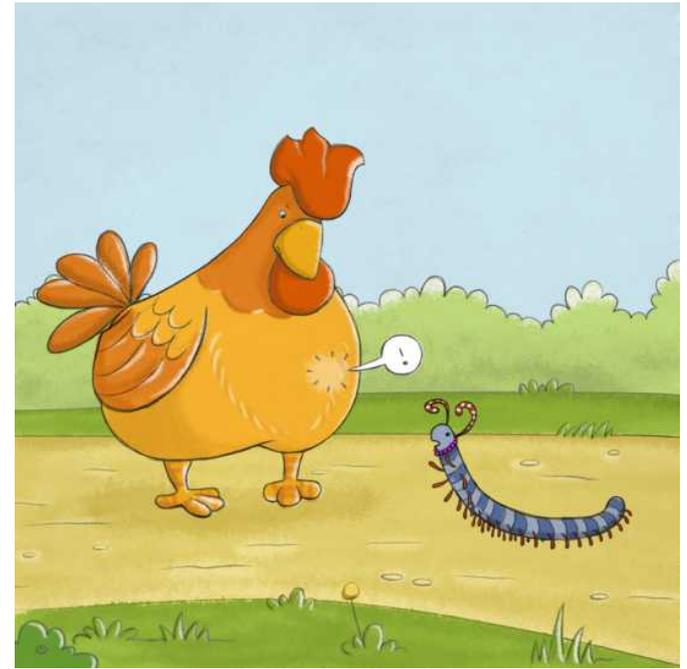


엄마 지네가 외쳤어요, "야야 너의 특별한 등  
력을 사용해봐!" 지네들은 지독한 냄새와 끈적  
한 맛을 났 수 있어요. 닭은 아프기 시작했어  
요.





닭이 집으로 걸어올때, 그녀는 지네의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 지네는 “우리 아이 봤니?” 라고 물었어요. 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지네는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엄마 지네는 작은 목소리로 “도와줘 엄마!”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엄마 지네는 주위를 둘러보며 귀기울여 들었어요. 그 소리는 닭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